

국어문법

서정수

국어문법 연구에 선풍을 일으킨 역사적 대업적

<국어문법>은 국어문법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이룬 획기적인 대업적

-앞으로 적어도 30년 안에는 이런 업적 나오기 힘들어

서정수 교수의 <국어문법>은 한국의 국어학 수준을 다른 차원으로 높이는 값진 열매가 아닐 수 없다. 최현배 <우리말본>으로 대표되던 국어학계는 이제 <국어문법>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하겠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안병희 교수>

또 하나의 우뚝한 거봉-<국어문법>은 우리 기대 이상의 대작이며 역작

그동안 우리는 제2의 <우리말본>, 현대판 우리말본이 나타나기를 고대해 왔다. 우리 앞에 이 우렁찬 큰 산의 모습을 우뚝 드러낸 <국어문법>은 그래서 더욱 찬연해 보인다. <국어문법>은 이제 오래도록 우리들이 필요로 하고, 두루두루 우리들이 아끼는 책이 될 것이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이익섭 교수>

반드시 읽어야 할 '국민의 문법' -이론과 방법을 특별히 달리하지 않는 한 당분간 이 책을 능가하는 문법서의 출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국어문법>은 우리말의 발전에 관심을 가진 사람 등 일반 교양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국민의 문법'이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고영근 교수>

외국의 언어학 이론과 국내의 국어문법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획기적인 역작

기능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신분석주의의 값진 열매로 길이 남을 업적이다. <연세대학교 국문학과 김석득 교수>

문법의 연구와 교육에 광채있는 길잡이-문법 연구와 문법 교육의 측면에서 값진 자산

이 저서 전편에서 우리는 지은이의 해박한 언어학적 이론과 지식, 정치한 과학적 방법론, 그리고 언어를 꿰뚫는 예리한 통찰력을 엿볼 수 있다. 언어의 보편성을 바탕으로 국어 문법을 체계화하고, 전통 문법과 현대 문법을 조화롭게 접목시켰으며, 언어가 간직하고 있는 진실과 신비를 깊이 있게 밝히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국문학과 성기철 교수>

뛰어넘기 어려운 고봉

-국어 문법에 관한 논의에서 <국어문법>을 읽지 않고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될 것

우리말의 거의 모든 분야를 분석/기술/설명 대상으로 한 "방대한 역작"로, 앞으로 국어 문법에 관한 논문이나 저서를 내려면, 이 <국어문법>을 보지 않고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될 것이다. 서정수 교수의 <국어문법>은 모든 분야를 깊고 넓게 다루었기 때문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양인석 교수>

국내의 국어 문법 연구의 명실상부한 대표적 업적-문법 연구의 훌륭한 새 이정표

개인의 연구라기보다는 국어 문법 연구의 한 시대를 대변하는 국어학사적인 정산이라고 가히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내용도 국어문법의 모든 분야를 새로운 각도에서 풍부한 예증과 더불어 체계적인 상론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법 연구의 새 이정표나 시금석을 마련해 주었다. 우리 국어학계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제 언어학계에서도 그 유례가 드물고 학계에 길이 남을 대표적인 역저임에 틀림없다.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성광수 교수>

ISBN7-5389-1302-5/H·69

(民文) 定价: 280.00元

ISBN 7-5389-1302-5



9 787538 913026 >



서정수 박사는 일찍이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뜻하는 바가 있어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에서 국어학을 전공하여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 박사는 외솔 최현배 선생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으며 현대 언어학 이론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변형-생성 문법 이론을 터득하여 이를 바탕으로 삼아 국어 문법 체계를 새로이 확립하는 데에 힘을 쏟아왔다. 그리하여 그는 자연 과학에서 닦은 조직적인 접근방식의 바탕 위에서 국어학을 발전시킨 독보적인 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스무해 남짓하게 국어 문법을 강의하였고, 현대 문법 이론을 두루 섭렵한 새로운 문법 이론의 권위자일 뿐더러, 국내외 학자들의 국어 문법 관계 논저들을 널리 모아 이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데에 남다른 열성을 보여왔다. <국어구문론 연구>(1978), <존대법 연구>(1984), <국어문법의 연구 I, II>(1990) 등의 여러 저서를 비롯하여 100여편이 넘는 국어 문법 관련 논문이 있다.

서 박사는 문장 작법 이론에서도 최고 권위자 축에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 서구 문장 이론의 핵심인 단락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작문의 이론과 방법: 단락과 논술법을 중심으로>(1985), <글쓰기의 기본이론과 서사문/기술문 쓰기>(1998), <논리적인 글쓰기: 설명문과 논설문>(1998), <정보화시대의 책과 논문쓰기 길잡이>(1998),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문장력 향상의 길잡이>(1999) 등을 펴내어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국어 문장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서 박사는 이 <국어문법>으로 대한민국 학술원상을 받았으며, 현재는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로 활발한 학계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도 <새천년 한국언어문화사전>(2003), <한국문화 백과사전>(2004), <21세기 한영대사전>(2005)등을 편집, 간행하는 등 활발한 저술 활동으로 우리 언어문화의 세계화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여러 면모들을 두루 살필 때에 우리는 서 박사가 심오한 이론가일 뿐더러 출중한 실천가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여느 분들에게서는 보기 어려운 이상적인 학자상이 서 박사에게 있다. 서 박사를 가까이 관찰해 온 이들은 이것이 타고난 재능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적극적이고 정열적인 성품과 피나는 노력-서 박사는 국어학 공부를 남보다 열 해 늦게 시작했으니 남보다 열 곱 많이 해야 한다는 뜻의 말을 평소에 자주 했다-에서 나온 결과라고 한다. 서 박사의 이런 재능, 성품, 노력이 응축되어 나온 책이 이 <국어문법>이다.

언론에 비친 역사적 평가

우리말 문법 현대이론 바탕정리
서정수 교수 20년 연구 결실 <국어문법> 펴내
최현배-주시경이론 극복, 품사개념 버려

서 교수의 20년 연구 결실인 이 책은 1천 5백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에 세계 공통의 보편 문법을 지향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종래의 우리 언어이론의 성과를 계승하고 노암 촘스키의 변형생성문법 이론을 바탕으로 했다. ...

<동아일보> 1995.2.11

최현배 선생의 <우리말본> 이후 50년만의 종합적
우리말 문법서-최신 언어이론 등 연구성과 반영

그동안 <품사론> <음운론> 등 국어학의 분야별로 이루어진 연구성과를 반영하고 우리가 흔히 존재가치를 잊고 사는 우리말의 정확한 문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특히 외국인에게 우리말을 지도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조선일보> 1995.2.16

국어의 전산화적 분석 연구에 중요한 기초 마련

<국어문법>의 저술을 통해 현대국어의 문법을 전반적으로 체계화하고 외국인의 우리말 학습이나 국어의 전산화적 분석 연구에 중요한 기초를 마련했다. ... <중앙일보> 1995.7.8

<우리말본>과 결별-현대분석체계 채택

최현배 선생의 <우리말본>(1937)이후 최초의 뚜렷한 학문적 성과다. 방법론에서 촘스키의 초기 이론을 빌렸으나 체계는 주시경의 그것으로 돌아왔다. 우리말의 '문법사실'을 본래 그대로 밝히는데 역점을 두었다. 품사론을 중시하는 전통문법을 멀리하고 문법을 '낱말요소'와 '문법요소'로 가르는 분석 체계를 택한 것이다. 기존의 문법책, 특히 학교문법의 전범인 <우리말본>과의 확연한 결별 선언인 셈이다. ...

<한겨레신문> 1995.2.14

국어문법

국어문법

서정수

黑版贸审字 08-2006-005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国语文法/[韩]徐正洙著. —牡丹江: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6. 2
ISBN 7-5389-1302-5

I. 国... II. 徐... III. 朝鲜语—语法 IV. H554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6)第006435号

书 名 / 国语文法
著 者 / [韩国] 徐正洙 <© 徐正洙 2006>
责任编辑 / 朝文部
责任校对 / 朝文部
封面设计 / 咸成镐
出版发行 /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印 刷 / [韩国] 荣进文院
开 本 / 787mm×1092mm 1/16
印 张 / 91.75
字 数 / 2405 千字
版 次 / 2006年 2月 第1版
印 次 / 2006年 2月 第1次印刷
印 数 / 1 - 500 册
书 号 / ISBN 7-5389-1302-5/H • 69(民文)
正 价 / 280.00元

地 址 / 黑龙江省 牡丹江市 西安区 海浪路 167号
电 话 / (0453)64132299(O)
E-mail / yw_lin@hanmail.net

하늘이 땅을 따로따로 만들어 한 땅에 한 겨레가 생겨나서 한 겨레에 한 말이 나타나게 하였다. 이리하여 하늘의 뜻에 따라 그 땅에 그 겨레가 살기에 마땅하며 그 겨레는 그 말을 쓰기에 알맞은 자연 사회로서 나라가 이루어져 각기 독립하게 되었으니 그 땅은 독립의 터(基)이고 그 겨레는 독립의 몸(體)이며 그 말은 독립의 본성(性)이다. 이 본성이 없으면 몸이 있어도 그 몸이 아니며, 터가 있어도 그 터가 아니니 그 나라의 잘 되고 못됨도 말의 잘되고 못됨에 달렸고 그 나라의 있고 없음도 말의 있고 없음에 매여 있다.

- 주시경, <국어문법> “머리말(序)” (쉬운 말로 옮김)

한 겨레의 문화 창조 활동은, 그 말로써 들어가며, 그 말로써 하여 가며, 그 말로써 남기나니; 이제 조선말은, 줄잡아도 반만년 동안 역사의 흐름에서 조선 사람의 창조적 활동의 말미암던 길이요, 연장이요, 그 성과의 축적의 끼침이다. 그러므로 조선말의 말본을 닦아서 그 이치를 밝히며, 그 법칙을 들어내며, 그 온전한 체계를 세우는 것은 앞사람의 끼친 업적을 이음이 될 뿐 아니라, 나아가서 계계승승할 뒷사람의 영원한 창조 활동의 바른 길을 닦음이 되며, 찬란한 문화 건설의 터전을 마련함이 되는 것이다.

- 최현배, <우리말본> “머리말”

저래의 영원한 스승

세종임금님
주시정님과 최현배님

그리고

최초의 한글 잡지 <뿌리깊은나무>를 펴내어 한글문화를 드높였고
이 <국어문법>을 끝없이 사랑하고 가다듬었던
한창기님의 영전에 이 책을 삼가 바친다

머리말

이 책은 현대 국어 문법의 모든 분야를 새로운 각도에서 체계 있게 다루었다. 일찍이 주시경 <국어문법>에서 기틀이 잡힌 국어의 전통문법은 최현배, <우리말본>에 이르러 한 높은 봉우리를 이루게 되었다. 그 뒤로 많은 이들이 국어문법을 여러 이론과 방법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해서 크게 발전시켜 왔으나 현대 국어 문법을 두루 다룬 종합적인 문법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그 모자람을 제쳐놓고 말하자면 <우리말본>이 나온 뒤로 거의 예순 해 만에 비로소 빛을 보게 된 종합적인 국어 문법서가 되는 셈이다.

현대 국어 문법서를 지어 보고 싶은 소망은 저자가 외국인에게 한국말을 가르치고자 <우리말본>을 공부하던 육십년대 초엽에 싹텄다. 그 뒤로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최현배 선생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또 현대 언어학 이론을 배우면서부터 새로운 우리말 문법서를 지어 보겠다는 결심이 굳어졌다. 그 때에 마침 세계 언어학계를 뒤흔들다시피 한 변형 생성 문법 이론에 심취하면서 그 새로운 이론을 바탕으로 참신한 우리말 문법서를 마련하여야 하겠다는 의욕이 더욱 강하게 타올랐다. 그리하여 칠십오년에 학위를 받은 지 한 해가 채 안 되어 일간잡지 <뿌리깊은나무>를 발행하기 시작했던 출판인 한창기 씨와 문법서 출판 계약을 맺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 뒤로 한 해가 멀다 하고 자꾸 수정과 확대가 되면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 생성 문법 이론을 따라 가기에 바빴으며 어느 단계의 이론을 바탕으로 국어 문법을 기술할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어서 고심만 하다가 세월을 흘러 보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문법 이론을 쫓아가기를 멀리하고 초기의 변형 생성 문법 이론과 그 동안에 쌓인 우리말 문법 연구 업적들을 바탕으로 하여 문법서의 저술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이에는 저자가 대학원 시절에 강의를 받은 일이 있는 심악 이송녕 선생의 충고도 한 계기가 되었다. 일본에서 크게 촉망을 받았던 고바야시라는 이가 외국 이론만 쫓아가다가 일본어학을 직접 다룬 업적을 별로 남기지 못했다고 일러 준 말이 저자에게 경종처럼 울렸던 것이다. 그리하여 팔십사년 무렵부터 그 동안 수집한 자료와 초고를 바탕으로 하여 문법 강의 교재를 타자본으로 100여부씩 마련하여 강의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을 거의 해마다 수정하고 확충하여 왔었다. 전산기를 쓰게 된 다음부터는 더 많은 자료를 직접 입력하여 교재 내용을 점점 더 확충하여 나갔다. 그런 일을 여러 차례 반복한 끝에 구십년대에 접어들어서는 그 내용을 고치고 깎는 일에 박차를 가하여 마음에 차기는 아직도 먼 상태에서나마 올해 구십사년에 이 책의 집필을 마물렸다.

이 책의 기술에는 그 나름대로 몇 가지 기본 태도와 원칙이 깔려 있다.

첫째로, 어떤 특정한 이론에 얽매이기보다는 우리말 “문법 사실”을 본래 그대로 밝히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언어학 이론이나 관점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말의 언어 사실은 누가 어떻게 보고 다루거나 그대로 있다. 하기가 좀 더 합리적이고 발전된 “보는 눈”(이론)의 관점에 서면 그전에 눈에 띄지 않던 면이 더 잘 밝혀지게 되는 이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일반이론에만 맞추어 문법 사실을 이리 꾸미고 저리 꾸며 보는 일에 얽매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자칫 언어 사실을 특정 이론에 맞추어 왜곡하는 결과를 빚을 염려도 있겠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여러 언어 이론의 “등불”을 널리 섭렵하되 언어 사실의 참모습을 되도록 밝게 비추어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다. 이를테면, 전통 문법, 구조주의 문법, 그리고 갖가지 생성문법 이론을 가리지 않고 등불로 삼되 우리 언어 사실을 가장 잘 밝혀 주는 한도에서만 적절히 활용한 것이다.

둘째로, 문법 이론의 적용에서는 얼마쯤 보수적이고 실질적인 점을 중시하였다. 최근 일반 언어 이론은 모든 언어에 공통되는 보편 원리를 추구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한 언어 이론은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고 우리 문법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이론들은 줄곧 발전하는 과정에 있을 뿐 아니라 개별 언어 사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추상성과 형식성이 짙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런 형식 문법 이론보다는 설사 일반성은 모자라더라도 국어의 언어 사실에 알기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기존 이론을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것이 오히려 보편 문법을 향한 터전을 굳게 다지는 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우리말 문법 사실을 다룬 여러 국내외 연구 업적들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어떤 종류나 어떤 단계의 이론이 되었거나 상관하지 않고 국어 문법 사실을 충실히 다루고 분석한 업적들이면 되도록 널리 살피고 정리하여 참고하거나 논의하도록 하였다. 다만, 지은이의 시간과 능력 그리고 열성이 미치지 못해서 주요 업적들을 낱알이 남김없이 수집하고 살피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을 뿐이다.

넷째로, 이 문법 책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널리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기술하고 설명하려고 힘썼다. 또 실제 국어 생활에서 부딪치는 문법 문제들도 되도록 많이 언급하고 다루도록 노력했다. 그것은 국어 문법이야말로 우리말을 할 수 있는 이는 누구나 관심 깊게 접근하고 익혀두어야 할 필수 과제이기 때문이다. 문법이란 한 마디로 말해 “말하는 법”을 가리키므로 국어를 할 수 있는 이는 누구나 문법을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문법서는 다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문법의 짜임새나 특성을 알기 쉽게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런 점에 특별히 유의하여 문법 사실을 쉽게 풀이하고 논의하는 데에 역점을 두어 누구나 국어의 참모습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힘썼다.

이렇게 이상을 높이 세우고 문법서를 마무리 짓고 보니 모자람과 아쉬운 점이 너무도

많았다. 이는 오로지 저자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데에서 오는 것임을 솔직히 인정한다. 다만 이것이 계기가 되어 더 알뜰한 문법서가 나와서 국어 문법 발전에 더욱 크게 이바지하여 주기를 바랄 뿐이다.

이 일을 마치기까지에는 술한 도움의 손길이 있었음을 밝혀 두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말본>을 비롯한 수많은 국어 연구 업적들이 이 책을 낳게 한 모태가 되었으며, 촘스키의 생성 문법 이론을 비롯한 일련의 일반 언어학 논저도 우리 문법 사실을 비추어 주는 고마운 등불이 되었다. 이런 업적들을 남겨 준 모든 이들 그리고 저자의 여러 스승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묵념을 올린다.

이 자리를 빌려 각별히 고마운 뜻을 표시하고자 하는 이는 이 책의 발행인 한창기 씨이다. 이 분은 이 책의 원고를 한 장도 빼놓지 않고 다 읽고 특유의 통찰력과 놀라운 직관력으로 이 책의 내용을 가다듬고 조리 있는 서술을 하는 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도움과 일깨움을 주었다. 더욱이, 이 책 출판이 상업성이 매우 낮아 보이는 데도 이처럼 크고 훌륭한 모습의 책을 만들어 낸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오로지 그분의 범상을 초월하는 국어 사랑, 국어 탐구의 정신이 아니고는 이루기 어려운 일이었을 줄로 안다.

거의 세 해 동안이나 지은이와 함께 전적으로 이 일에 매달리다시피 하고 갖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임유중 군에게 이 자리를 빌려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임군의 도움이 없었던 들 이 일은 이루어지기 힘들었을 것이다. 한 해 가까이나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 일을 거들어 준 김정선 군도 참으로 고맙다. 그밖에 여러 면에서 도움을 아끼지 않은 채인숙, 우인혜, 손세모돌, 김충효, 정달영, 성시형, 최병선, 이준희, 박경삼 선생과 조성문, 전용자, 김순자, 김태경 군 그리고 한양대 국문과 국어학부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보낸다.

한양대학교 김종량 총장을 비롯한 여러 선배 동료 교수들의 격려와 성원에도 감사를 드리며, 저자가 국어학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고 각별히 보살펴 준 고 민티모데오 신부에게 깊이 감사하며, 저자로 하여금 일찍부터 전산기를 쓰게 하여 일의 능률을 놀랍게 향상시키도록 배려하여 준 고 김충희 교수를 새삼 상기하며 추모한다.

끝으로, 어려운 시절에 갖은 고초를 겪으며 길러 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고 한 달 온 집안을 작업장으로 삼아 참고 자료와 원고를 늘어놓기만 하는 데도 파썸리가 다 되도록 참을성을 보여 주었을 뿐더러 끊임없이 격려와 뒷바라지의 노고를 아끼지 않은 아내에게 이 작은 보람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랄 따름이다.

천구백구십사년 십일월

서정수

수정 증보판을 내면서

무릇 우리말의 문법은 우리말의 짜임새를 이루는 기본 틀이요 거꾸집이다. 낱말이나 발음도 중요하지만 비교적 자주 바뀔 뿐 아니라 한자어나 딴 나라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문법의 기본 뿌리와 줄기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고유한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몇천년 동안이나 한자어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고유한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법을 바탕으로 해서 방언, 옛말, 북쪽이나 해외 동포가 쓰는 말도 우리는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문법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 문법이란 “말하는 법”이기에 말을 할 줄 아는 이는 누구나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 우리는 거의 모든 문법에 맞는 말을 하고 살며 누가 문법에 어긋난 말을 한다면 금방 그것을 일깨워 줄 만큼 올바른 문법적 직관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문법을 모른다면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우리가 외국말 단어들을 몇 백개 몇 천개씩 알면서도 그 말을 못하는 까닭은 단어들을 짜 맞추어 문장을 만드는 문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우리는 어릴적부터 우리말 문법을 통달하여 자유 자재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문법의 됴됨이를 제대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익히 알고 일상 부리고 있는 문법이지만 그 짜임새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자면 쉽지가 않다. 마치 자동차를 잘 몰고 다니면서도 그 차의 구조와 원리를 쉽사리 설명하지 못하듯이 우리말의 짜임새와 특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저자는 우리말 문법의 짜임새와 원리를 누구나 잘 이해하고 나아가 설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도움을 주려고 <국어문법>의 초판을 세상에 내어 놓았었다. 여러 가지로 모자란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어를 사랑하는 수많은 분들과 관계 전문 학자들 그리고 언론 기관 등에서 분에 넘칠 만큼 크게 치하를 해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마침내 제 40회 대한민국 학술원상까지 받기에 이르렀다. 이는 오로지 우리말 문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있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참으로 마음 속에 두고두고 깊이 새겨야 할 고맙기 그지없는 일이다.

이 자리를 빌려 각별히 감사하고자 하는 바는 초판의 출판 기념회를 전후하여 많은 분들이 축사와 격려 그리고 서평을 해 준일이다. 김종량 한양대 총장과 안병희, 김석득 두분 교수의 애정 어린 격려와 축사에 깊이 감사하며, 고영근, 이익섭, 남기심, 성기철, 성광수, 양인석 등 여러 교수의 진지한 서평에도 각별한 고마움을 표시한다. 또 격려와 축의를 베풀어 준 박창해, 허웅 두분 은사 및 이기문, 김완진, 장석진, 이기용 등 학계 원로 교수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올린다. 오명호, 맹선재 두 부총장 그리고 이용태 삼보컴퓨터 회장 등의 우

의에 찬 축의에 깊이 감사한다. 출판 기념회를 주관해 준 장세경, 이명규, 김정수, 장경희, 이필영, 박노준, 정민 등 여러 동료 교수에게 감사를 드리며, 정길남, 김충효, 정정덕, 정달영, 김미형, 손세모돌 교수 등의 축하와 후의에도 고마움을 잊지 않는다. 아울러, 각별한 축의를 표시해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여기 유달리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이는 초판을 펴내는 일을 맡아 준 한창기 사장이다. 한사장의 남다른 국어 사랑의 정신이 아니었더라 이 책의 초판이 빛을 보기 어려웠을지도 모르며, 더구나 대학 출판부에서 이 책의 수정판을 펴내어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준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뜻을 표시하고자 한다. 또 초판을 1000부씩이나 사다가 필요한 분들에게 기증함으로써 이 책의 출판과 보급에 결정적인 지원을 베풀어 준 아이비엠(IBM)사의 한국 문화 애호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이에 저자는 그 말할 수 없는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그동안 이 책의 내용을 더욱 가다듬고 모자란 점을 기우는 일에 힘써 왔다. 초판에는 적지 않은 오자와 모자란 설명 그리고 빠뜨린 주요 사항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우고 다듬는 작업을 서둘렀다. 어떤 부분은 다시 쓰기도 하고 또 일부는 새로운 내용으로 보완하기도 하였다. 북쪽 문법이나 일본어, 영어 문법과의 비교 서술도 좀 더 늘렸다.

이번 수정 증보 과정에서 여러 고마운 손길이 있었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초판을 발간하는 일에 저자와 함께 매달렸던 임유중 선생은 개정 작업과 편집 조판의 일에도 그 노고가 컸으니 그 고마움은 이룰데 없다. 한편, 전산 편집의 권위자인 김병선 교수의 도움은 이 책의 모습을 가다듬기에 값진 길잡이가 되었다. 또 잊지 못할 일은 정제한 씨(서울대 국문과 대학원)의 자원 봉사이다. 초판의 오자 등을 샅샅이 조사하여 알려 주었을 뿐 아니라 개정 보안 작업에도 참여하여 큰 도움을 주었기에 거듭 감사하여 마지 않는다.

김형민, 우인혜, 나효순, 이준희 선생을 비롯하여 이상규, 김태경, 조성문, 김정선, 진우성, 김순자, 최은아 군 등이 몇 번씩 교정 작업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점은 언제나 잊지 못할 것이다. 또 다카하시(高橋萬里子), 모리모토(森本勝彦) 선생의 도움에도 감사한다.

끝으로, 이 수정 증보판을 가능케 한 한양대학교 김종량 총장에게 감사하며 출판원 실무진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시한다. 아울러, 각별한 정성을 들여 이 책을 이렇게 아름답게 제작한 용지인쇄주식회사 신장섭 사장에게 감사하여 마지않는다.

천구백구십육년 정월

서정수

수정 삼판을 펴내면서

이 책의 수정 증보판을 펴낸 지 열해가 흘렀다. 책은 이미 절판되어 찾는 이가 많았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재판을 미루어 왔다. 그러던 중 중국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임영만/林永万 사장의 제의를 받아 중국과 국내 판으로 수정판을 내기에 이르렀다.

임사장과 그 출판사 고문인 김경환 선생은 일부러 저를 찾아 와 중국에서 이 책이 한국어문법의 최고봉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음을 일러 주면서 이 책을 찾는 이가 많으므로 중국에서 출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필자는 그분들의 진심어린 격려에 크게 고무되어 중국 독자들을 위한 출판을 결심하기에 이르렀으며, 아울러 국내 판도 동시에 펴내기로 하였다.

이 책의 수정판에서는 오자와 잘못된 어구들을 일일이 고치면서 상당 부분 손질을 하였다. 아직도 완벽한 책이 되기에는 멀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앞의 수정 증보판보다는 훨씬 더 나은 책을 만들도록 애썼다.

또 이 재판에서는 더 낮고 가벼운 인쇄 용지를 써서 무게를 줄이고 책 모습도 산뜻하게 가꾸었다. 최신 인쇄기를 써서 출판하여 주신 영진문원 김선만 사장에게 감사하며, 이 책의 표지 모습을 참신하고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쓴 이지영님에게 고마운 뜻을 표시한다.

이천육년 정월 스무날

서정수

차례

머리말	7
수정 증보판을 내면서	10
수정 삼판을 내면서	12
차례	13
일러두기	15
1. 들머리: 말과 문장과 문법	17
2. 문장의 단위 구성소: 형태소와 낱말	55
3. 문장 구성소의 범주 구분과 기능	127
4. 단순문의 기본 구조	173
5. 시제와 상	225
6. 서 법	301
7. 마침 문장 / 종결문	357
8. 명사구와 명사	435
9. 대명사와 수사와 관형사	489
10. 용언의 구문론적/의미적 특성	585
11. 보조 용언과 용언 “하다”	625
12. 동사, 형용사, 존재사 및 지정사	679
13. 부사어의 형태와 구문론적 특성	757
14. 부사어의 의미 특성	799
15. 기능 표지, 후치사 및 한정사	865
16. 부정문	933
17. 대우법	971
18. 피동문과 피동성 표현	1031
19. 사동법과 사동문	1069
20. 대등 접속문	1101